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497호(2012.9.28)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

(2012~2021)

2012. 9. 28

☐☐ 목 차 ☐☐

I. 계획수립 배경 및 추진경과	1
1. 계획수립 배경	1
2. 추진경과	5
II. 그간의 해외 농업진출 현황과 평가	6
1.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 추진상황 평가	6
2. 해외사례 평가 및 국제사회의 동향	9
III. 목표 및 전략	10
IV. 주요 추진과제	11
1. 해외농업개발 진출지역 다변화	11
2. 해외확보 곡물의 국내 반입 활성화	14
3. 해외농업개발 기업 육성	15
4. 해외농업개발 지원 체계 내실화	18
5. 세계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20

I. 계획수립 배경 및 추진경과

1 계획수립 배경

□ '08 세계식량위기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곡물가격이 '10.7월과 '12.7월 다시 급등하는 등 곡물가격 변동주기가 빨라지는 추세

○ 곡물가 상승 요인의 다양화, 이상기후 현상의 일상화가 주 요인

* '08년의 농산물 가격 급등은 수요증가(신흥국 경제성장, 바이오연료 등)가 주 원인인 반면, '10년 이후는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공급량 감소가 주 원인

* '05년 이후 2~3년 주기로 국제곡물가격이 상승

□ 중장기적으로는 곡물수급의 구조적 불균형*, 과점적 곡물시장, 국제 투기자본의 개입 등으로 가격 변동성 확대 전망

* '12~'21 기간 중 수요량 증가율(12.4%)이 생산량 증가율(11.3%)보다 높고, 기상이변, 수자원부족 등으로 공급량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OECD-FAO)

□ 우리나라는 곡물 수입의존도*가 높고, 곡물 수입선**이 편중되어 국제곡물 가격 변동성에 취약한 구조

○ 국내 생산량 증대에 의한 자급율 제고와 병행한 해외농업개발 필요

* 옥수수, 밀, 콩은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제6위의 곡물 수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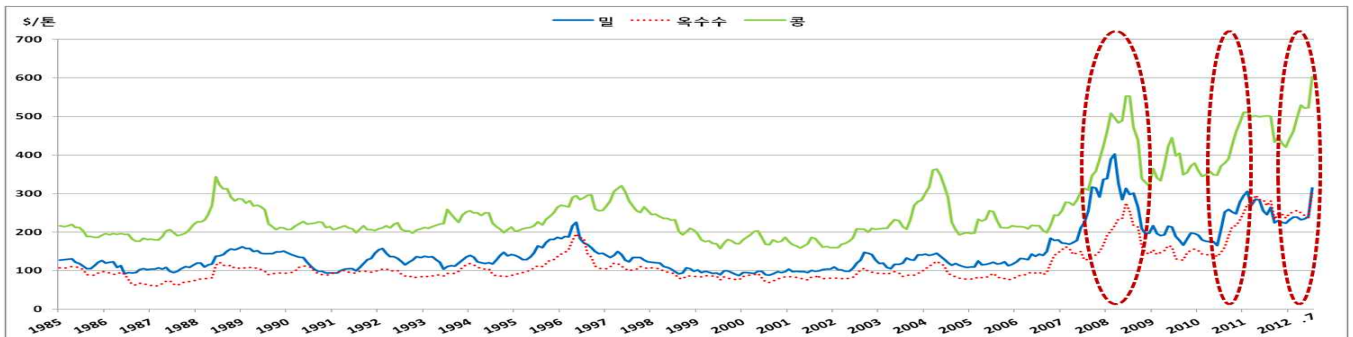
** 미국·호주 등 주요 생산국 수입의존도 80% 이상, 4대 곡물 메이저 의존도 50% 이상

◇ 중장기적으로 불안정한 국제곡물수급 상황하에서 국제적으로는 세계식량안보에 기여하고, 국내적으로는 주요 곡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우리 농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 수립 필요

최근 국제 곡물수급 동향 및 전망

- (최근동향) '08년 세계식량위기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곡물가격이 '10.7월과 '12.7월 이후 다시 급등세를 보이는 등 변동성 확대* 추세
- 곡물가 상승 요인의 다양화, 이상기후 현상의 일상화가 주요인
 - * '08년의 농산물 가격 급등은 수요증가(신흥국 경제성장, 바이오연료 등)가 주 원인인 반면, '10년 이후는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공급량 감소가 주 원인
- '12/'13년은 세계 경제침체에 따른 소비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생산량도 큰 폭으로 감소되어 수급불안 심화 우려(USDA, 8월)
 - * '12/13년 국제곡물 소비량(2,287백만톤)은 생산량(2,247백만톤)을 초과하고, 재고율이 (2010/11) 20.7% → (2011/12) 20.5% → (2012/13) 18.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연도별 주요곡물(밀, 옥수수, 콩) 가격 변화 추이 >



- (중장기 전망) 생산보다 높은 수요량 증가율, 과점적 곡물시장, 국제 거시경제변수의 변화 등으로 가격 변동성 확대 전망
 - * '12~'21 기간 중 수요량 12.4% 증가 반면, 생산량은 11.3% 증가(OECD-FAO)
- (수요) 세계 인구증가(7억명 증, '11년 70억명 → '21 77억),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 등으로 수요 증가
- (공급) 생산량 증가세 둔화*, 기상이변, 사막화 및 수자원 부족, 주요 국가의 곡물수출 제한 등에 따른 공급량 변동성 심화 전망
 - * 세계 곡물 생산량 증가율 : ('09~'11) 2.5%/연 → ('12~21) 1.1%/연(OECD-FAO)

□ (국내수급) 주요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고, 일부국가 및 곡물 메이저 의존도가 높아 곡물위기 발생시 대응에 취약한 구조

○ '12년 곡물 수입 예상량(15,034천톤)은 수요량(20,114천톤 추정)의 74.7%에 달하며, 옥수수, 밀, 콩은 90% 이상 수입에 의존

- 곡물별로는 옥수수 수입 비중(55.3%)이 가장 크며, 용도별로는 사료용(63.2%)이 식용(35.9%)보다 훨씬 비중이 높음

* '11년도 우리나라 곡물 수입량은 세계6위, 옥수수는 일본, 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

< 국내 곡물수급 전망('12 양곡년도) >

(단위 : 천톤)

구분	공 급 량			수 요 량					곡물 자급률(%)
	이월	생산	수입	식량	가공용	사료	기타	계	
쌀	952	4,224	716	3,560	650	-	771	4,981	84.9
옥수수	575	74	8,317	77	1,885	6,641	14	8,617	0.9
밀	387	42	4,102	1,101	987	1,962	92	4,144	1.0
콩	85	129	1,329	74	344	1,024	8	1,454	8.9
기타작물	119	293	569	165	646	66	27	904	32.4
계	2,118	4,762	15,034	4,977	4,513	9,693	933	20,114	23.7

* 기타 : 종자용, 수출, 감모손실 등 포함 // 자급률 = 생산량/소비량 × 100

* 기타곡물 : 보리, 감자·고구마, 팥, 메밀, 녹두 등

* 수입 및 소비량 : 밀·옥수수·콩은 최근 3년 평균치, 이외 작물은 '11년 수준 적용

○ 미국·호주 등 주요 생산국가 수입 의존도 80% 이상, 4대 곡물 메이저 의존도 50% 이상으로 곡물 수입선이 편중

* 곡물 수입국별 비중(% , '11년): 미국 55.4%, 호주 14.0, 캐나다 10.8

** 4대 곡물메이저로부터 수입비중(% , '07~'11년 평균): 옥수수 57.4, 밀 48, 콩 4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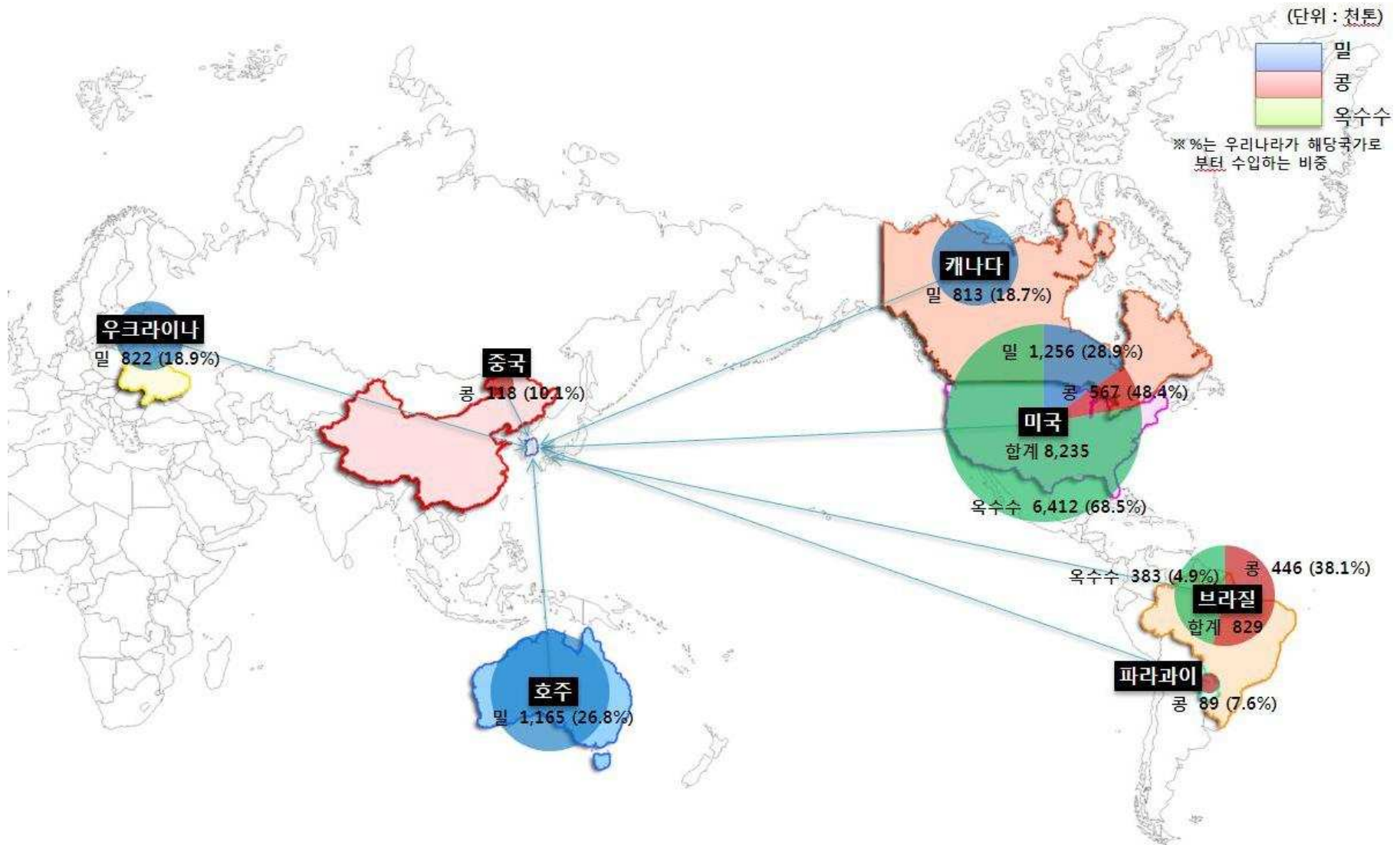
○ 겨울철 유희농지 활용 등 곡물 자급률 제고 정책 추진으로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나, 수입의존도는 여전히 높을 전망

* 곡물 자급률 목표 : ('10) 27.6% → ('15) 30 → ('20) 32 (농림수산식품부, 11.7월)

<참 고>

우리나라의 주요곡물 수입현황('09~'11 3개년 평균)

- 곡물별 5% 이상 수입국가 -



2

추진경과

□ '09년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09~'18)」을 수립하는 등 해외농업개발 정책 본격 추진

○ 국민경제대책회의('11.4.7), 위기관리대책회의('12.1.4) 등을 통해 안정적 곡물수급체계 구축 논의

□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정·시행('12.1.15)

○ 3년마다 10년 단위의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5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단위의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을 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제4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3년마다 법 제5조에 따른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을 수립

□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 수립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12.1~12.4월)

○ 학계·업계 등 관계 전문가 회의 개최 ('12.6.7)

○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조정협의회 개최 ('12.6.28)

○ 해외농업개발 국제심포지엄 개최 ('12.7.13)

○ 관계부처 협의 ('12.7월)

○ 해외농업개발심의회 심의 ('12.9.7)

II. 그간의 해외농업개발 현황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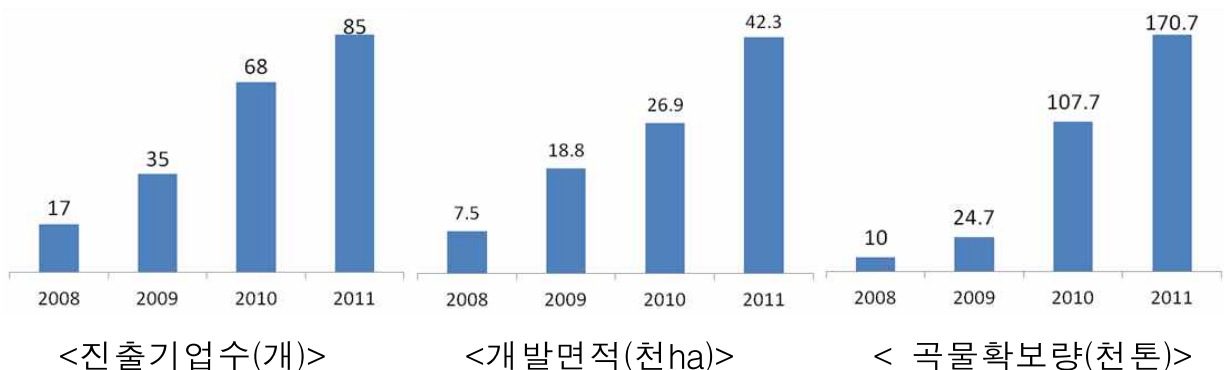
해외농업개발 추진경과

- ◇ ('60~'70년대) '정부주도'로 해외이주법 제정('62.3), 남미 농장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나, 부적합지 선정, 영농의지 부족 등으로 실패
- ◇ ('80년대 이후) '민간기업 중심'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추진(연해주, 중국 등)하였으나, 대규모 영농경험 부족 등으로 대부분 철수*
 - 다만, 일부 기업**의 경우 안정적 사업 추진중
 - * 고려합섬('95, 러시아), 선경('81, 워싱턴), 대륙개발('94~'98, 중국 삼강평원 등)
 - ** 풀무원('03, 중국, 유기농 콩 계약재배), 남양 알로에('02, 연해주, 약용작물 계약재배 등)
- ◇ (現 정부)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09~'18)」 추진중
 - * 해외농장 및 유통사업 진출 기업에 생산시설·자재 및 영농비 용자, 투자 환경조사비용 보조 등 ('12년 예산 : 용자 300억원, 보조 20억원)

1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 추진상황 평가

가 성과

- 20개국에 85개 기업이 진출, 42천ha를 개발하여 17.1만톤을 생산·수집('11년)하는 등 해외농업개발 크게 확대



- 세계 최대 곡물수출국인 미국에 곡물 유통망 구축 추진 중
 - 민간기업의 곡물터미널 사업(미국 서부지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민간기업간 곡물유통법인(aT Grain Company) 컨소시엄 구성

□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농림수산식품부(국제개발협력과, '11.6월)와 한국농어촌공사(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 '08.7월)에 해외농업개발 전담 조직 설치
-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시작
 - 해외농업개발 기업 대상 융자(연리 2%) 지원
 - 상환기간도 개선(3년거치 7년 상환 → 5년거치 10년상환)
 -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동산 담보 관련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기업의 지급보증 수수료 부담이 11.03%에서 0.48% 수준으로 감소
-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정('12.1월 시행)

□ 해외농업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다양한 전략 추진

- 정부는 정부간 협상을 통해 토지정보 제공 등 제도적 안정성을 지원하고, 민간은 생산·유통 등 사업에 집중
- 해외농업개발과 ODA지원을 연계하여 해외농업개발의 효과를 높이면서 상대국 정부와의 우호적 여건 조성(win-win 효과)
 - * 필리핀 해외농업개발지역에 농기자재, 농산물 수확후 처리시설 등 ODA지원('10~'12)
- 민·관 공동으로 해외농업투자 환경조사, 관련정보의 공유(www.oads.or.kr),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추진

나 문제점

- 해외농업 진출 기업 수와 투자 규모가 증가하여 왔으나, 아직 투자 규모가 선진국의 유사 기업과 비교하여 소규모
 - * 용자지원기업 평균 개발면적: ('09) 539ha → ('10) 750 → ('11) 1,050
- 해외농업투자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실적은 아직 없는 실정
- 국가별 해외농업개발 경쟁이 심화되어 우량 해외농업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건은 점점 어려워짐

- 해외농업개발이 지역별·분야별로 편중됨
 - 진출지역이 동남아·연해주 등 일부지역에 편중
 - * '11년말 현재 해외농업개발 면적은 러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가 84%
 - 곡물 위주의 지원에 따라 농산업의 외연확장, 식품산업 육성 정책과의 연계성 부족

- 해외농업개발로 확보된 곡물의 국내반입 실적 저조
 - * '11년 해외농업개발로 확보한 곡물(17.1만톤) 중 국내반입량은 796톤
 - 해외농업개발 기본계획('09 마련)을 본격 추진한 지 3년이 지난 현 단계에서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음
 - 단기간에 곡물메이저 수준의 경쟁력 확보는 어려운 실정
 - * 일본의 경우 브라질 세하도지역 농장개발에 20여년, 곡물유통사업(젠노) 정착에 30여년 소요
 - 특히, 농장형 해외개발은 안정적 생산을 하기까지 일정 기간 소요되므로 유통과 연계된 국내반입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

- 해외농업개발에 특화한 대규모 영농, 유통, 농기계 등에 관한 전문가가 부족하고,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한 정보도 부족
 - 개별 기업차원에서는 국가별·지역별 농업투자정보 입수에 한계

- 일본, 중국, 중동 등 곡물수입국의 식량안보 노력, 유럽 투자기관의 바이오연료 확보 등을 위한 해외농업투자 확대 추세
 - 일본, 중국은 전략지역을 선정하고,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해외 곡물확보사업 추진
 - 일본은 민간주도(젠노, 종합상사)로,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지방공기업 주도(지방정부 금융지원 등)로 추진
 - * (일본) 마루베니社は 미국 가빌론社를 인수(125, 50억불), 연간 4천만톤 규모의 세계 최대 곡물유통기업으로 발전, 젠노(全農)는 산자·수출·일본내 사료회사에 이르기까지 계열화 완료
 - * (중국) '01년 농업의 밖으로 나가기(저우추취, 走出去)를 국가 전략으로 정하였으며, 기업의 해외투자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급
 - 중동국가들은 수단, 파키스탄 등 지리적 인접국가에 해외농업 개발을 늘리는 경향
 - 사우디아라비아, UAE는 제3세계 국가에서 대규모의 농지확보
 - 한편, 대규모 해외농업투자 증가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면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짐
 - 개도국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지역공동체 해체, 개발 과정에서 환경파괴 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
 - FAO, World Bank 등 국제기구는 해외농업개발 투자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 및 투자 기본원칙 논의중
 - 이러한 논의결과는 농업투자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발전 가능성
 - * FAO 식량안보위원회는 '토지·수산·산림자원 소유에 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마련('12.5월)
 - * World Bank, FAO, IFAD, UNCTAD 공동으로 농업투자에 관한 7가지 원칙을 제시하여 논의중이며, FAO가이드라인에 부합되도록 '13년 말까지 기본 원칙 마련 예정
 - ① 토지 및 자원에 대한 권리 존중 ② 식량안보 확보 ③ 투명성, 선량한 관리 및 투자 환경 확보 ④ 협의와 참여 ⑤ 기업의 책임감 있는 투자 ⑥ 사회적 지속 가능성 ⑦ 환경적 지속 가능성
- ⇒ 외국의 해외농업개발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해외농업 투자에 관한 국제 규범의 틀을 존중하면서 추진할 필요

Ⅲ. 목표 및 전략

목표

해외농업개발로 '21년까지 국내 곡물소비량의 35% 확보

전략

- ◇ 지역별·국가별 농업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진출 지원
- ◇ 민간의 해외농업개발 투자 촉진 및 네트워킹 강화
- ◇ 세계식량안보 차원의 상생협력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주요 추진 과제

① 해외농업개발 진출지역 다변화

② 해외확보 곡물 국내 반입 활성화

③ 해외농업개발 기업 육성

④ 해외농업개발 지원체계 내실화

⑤ 세계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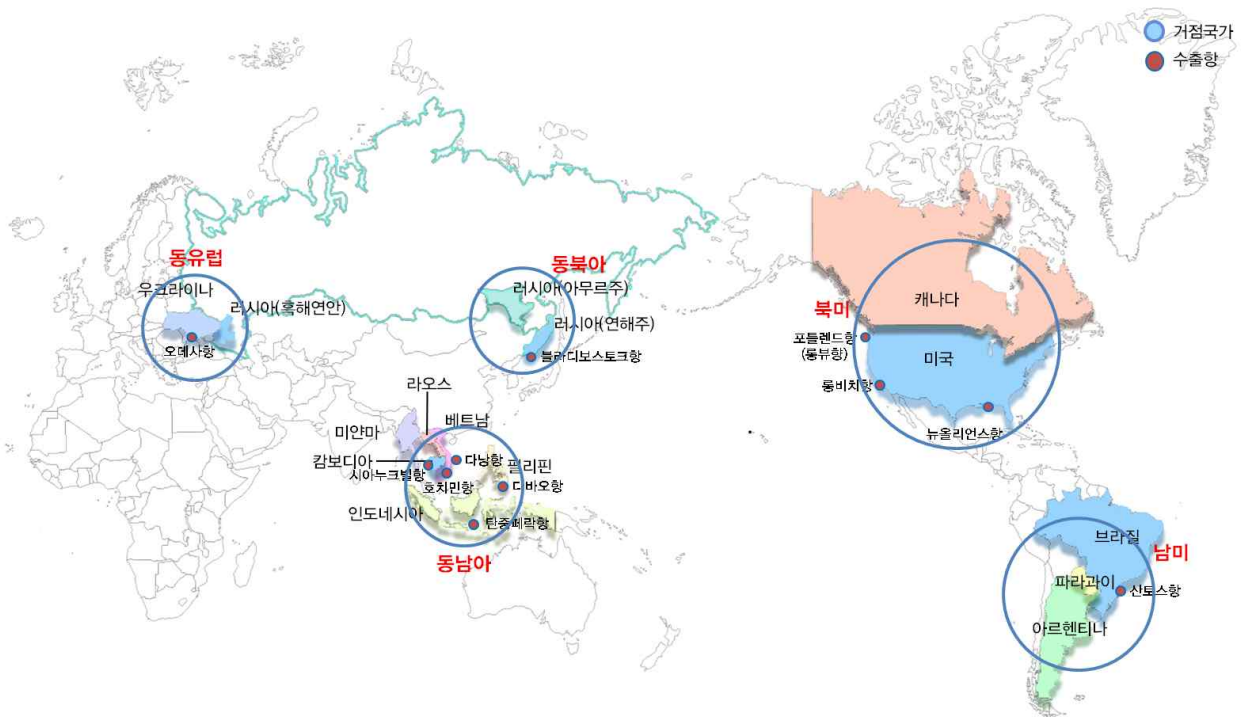
IV. 주요 추진과제

1 해외농업개발 진출지역 다변화

가 중점 진출 지역

- 곡물수급 위기 대처 능력 제고 차원에서 5개 권역 14개국을 중점 진출지역으로 선정하여 진출 지역 다변화 도모
- 중점진출지역은 생산·수출잠재력, 투자여건, 유통여건 등을 고려, 해외농업개발로 확보된 곡물의 국내 반입여건이 유리한 지역 선정

권역	중점국가	권역	중점국가
동북아	러시아 (연해주, 아무르주)	동유럽	러시아(흑해연안), 우크라이나
동남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북미	미국, 캐나다



나 권역별 진출 전략

	지역별 특성	진출 전략
동북아 (러시아 연해주, 아무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점) 광활한 농지자원, 러시아 정부의 높은 개발의지 ○ (단점) 유통인프라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작목 : 옥수수, 콩 ○ 대규모 농장개발 우선진출 하면서, 축산·식품산업, 유통 등 연계 ○ 유통망 확보를 위해 러시아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추진
동남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점) 투자에 우호적, 기상 여건이 농업에 유리, 지리적 인접성 ○ (단점) 물류인프라 부족, 대규모 농지 확보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작목 : 카사바, 옥수수 ○ 소규모 농장개발 우선 진출 하여 경험 축적, 현지기업과의 신뢰관계 형성에 주력 ○ 유통사업은 중장기적 진출
동유럽 (러시아 흑해연안, 우크라이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점) 거대한 농지, 비옥한 흑토지역으로 농업여건 유리 ○ (단점) 유통인프라 부족, 수출 제한조치 및 정치적 불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작목 : 밀 ○ 식용 밀 확보에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분업체 등 실수요기업 및 저장·유통분야 진출 확대 ○ 곡물 수출제한조치 억제를 위한 다자·양자 외교적 노력 강화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점) 콩, 옥수수 수출시장 점유율이 높고, 북미와 수확 시기가 계절적 보완관계 ○ (단점) 생산·유통인프라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작목 : 콩, 옥수수 ○ 유통형 기업 중심으로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진출 종합상사 및 해운사의 투자 확대 유도
북미 (미국,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점) 세계 최고의 곡물 생산·유통·수출 인프라 구축 ○ (단점) 곡물메이저의 시장 장악으로 신규 진입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작목 : 밀, 콩, 옥수수 ○ 곡물메이저와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하여 시장 진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다양한 투자 모델로 확산

다 단계별 진출 전략

- (농장개발) 농업 유망지역의 면적확보 후 인근지역으로 확장, 규모화를 통해 현지 유통망과 연계기반 마련
 - (1단계) 기개간된 농지 확보 또는 현지농장을 인수하거나 지분 참여 방식으로 진출 후 시험재배 단계를 거쳐 본격 생산 체제 구축
 - (2단계) 운영중인 농장인근의 미개간지 개발을 통한 면적확대 등으로 규모화 추진, 농기계·농자재·저장 및 가공산업 등의 진출
 - (3단계) 생산이외에 계약재배, 수매 등으로 규모화를 강화하여 경쟁력 확보한 후 현지 유통망과 연계
- (유통망 구축) 곡물 유통망(수출·강변·산지EL)을 확보한 후 생산·수집·저장·가공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여 경쟁력 확보
 - (1단계) 곡물유통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하여 메이저와 공동으로 사업 추진하거나 지분 참여를 통해 수출EL 확보
 - (2단계) 산지곡물 확보를 위하여 산지 엘리베이터 구축 또는 생산자 단체와 제휴하는 등 다각화 추진
 - (3단계) 곡물 생산 및 유통망을 구축한 후 생산·수집·저장·가공·유통 등 전 과정에 걸친 계열화 추진

< 단계별 진출 계획 >

구 분	1단계 <교두보 확보>	2단계 <확산 및 규모화 >	3단계 <경쟁력 확보>
농장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해외농업개발 관심 확산 ◦해외농지확보 및 개량 ◦시험재배 등을 통한 적정작목 선정 및 재배 기술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확보 면적 확대 ◦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산지유통과의 연계 ◦전후방 연관산업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생산 및 지역 농민과의 계약재배 ◦산지유통 기반 구축 및 수출 유통망과 연계 기반 마련
유통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곡물메이저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미국 유통망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지강변 엘리베이터 확보 등 사업영역 확대 ◦브라질 등으로 곡물 유통망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수집-저장-가공-유통 등 전 과정에 걸친 계열화 추진

- 해외곡물의 국내반입에 유리한 유통형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유통형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범위를 확대
 - (현행)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비 → (개선) 곡물 매입비 등에도 지원
 - * 곡물 매입 및 보관, 자금 지원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 해외농업개발로 확보한 농산물을 국내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TRQ물량 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수입권 공매제도 활용 등)
 - 물류사업을 추진하는 해운사·종합상사 등의 곡물유통사업 참여 유도
 - 현지 유통비용 절감 및 투자위험 감소를 위해 현지 유통업체의 시설 이용 및 사업 제휴 등의 파트너십 강화
- 국내 실수요업체의 해외농업개발 참여 유도
 - 식품·사료업체 등 국내 실수요업체의 해외농업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해외농업개발 기업과의 상호간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 해외농업 기업이 생산한 곡물의 품질 향상 지원
 - 현지에 적합한 종자개발 및 보급, 수확후 관리 기법 등 다양한 유통, 식품가공 관련 연구개발 지원
- 곡물수급 비상 상황시의 해외곡물 국내 반입 관련 매뉴얼 마련
 - 국제곡물 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위험 수준에 따른 단계별 대책 마련
 - 세계 곡물수급 동향 및 재고상황, 주요 수출국의 품목별 수출량, 곡물 수출국가의 주요 수출항·수출경로 등 정보 관리

가 해외농업개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다각화

□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추진

○ 해외농업개발 자금지원 대상품목 확대

- 곡물확보에 중점을 두되, 바이오에너지 작물, 조사료, 국내 식품 원료(사탕수수, 커피, 유지작물 등)로 공급되는 작목으로 확대

* 식량안보 관련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우선 지원

○ 정부 융자지원과 함께 농식품 모태펀드,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활용한 투자재원 확대 및 다각화 추진

- 투자 촉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 설립 유도
- 기관 및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해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등에 대한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 해외농업개발 투자 로드쇼를 주기적으로 개최

○ 국내 반입실적 등 해외농업개발 성과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특별융자 지원(무담보 등) 추진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기업의 해외농업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세제혜택 부여

□ 농산물 재배와 농자재·가공·유통 등과의 계열화를 통한 가치사슬이 형성되도록 전·후방 연관산업 동반진출 강화

* (농자재) 비료, 농약, 농기계 등 (가공) 식용유, 식품공장 등 (유통) 도매 등

○ 해외투자여건 조사 등 현지 조사, 해외농업개발 투자유치 설명회 등에 관련 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

○ 해외농업개발 기업과 연계 진출하는 전·후방 연관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나 전문인력 육성 및 컨설팅 지원

- 대규모 조방형 농업, 국제 곡물유통, 해외진출 전략, 경영 및 재무관리 등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 강화
 - 해외농업개발 업체 종사자 또는 진출 예정자 등의 실무교육 및 재교육 등을 위해 단기 전문교육과정(3~6개월) 운영 지원
 -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농업개발 전문 대학원 개설 유도 및 선진국에서의 전문분야 교육 이수기회 부여
 - 해외농업개발에 참여할 젊은 인력의 저변 확대 추진
 - 농과대학에 해외농업개발 관련 교과과정 개설 지원
 - * 예) 해외농업개발 관련 서머스쿨 프로그램을 개설한 대학에 학생들의 해외농업 현장견학 등을 위한 항공료 등 지원
 - 해외농업 관련 학위논문 준비 대학원생이 해외농업개발 현장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실험 비용 및 현지 체재비 일부 지원
 - 인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농업 개발 기업 채용과 연계
 - 교육비 등은 정부, 관련 민간기업, 대학 등이 분담하여 지원
- 영농기술·법률·경영·자금운용 등에 대한 분야별, 지역별 전문가 pool 구성 및 컨설팅 지원 확대
 - 국내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퇴직 전문인력, 해외 전문가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컨설팅 지원
 -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내 관련 업계·학계와의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통한 정보교환 기회 제공
 - 기 진출 해외농업개발 기업의 성공 및 실패사례 수집 및 보급

다 민·관 협력 진출

- 정부는 해외농업진출 국가와의 농업협력MOU 체결 등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민간의 해외농업개발 진출의 기반 조성
 - 정부는 기업의 토지확보, 행정절차 이행, 애로사항 해소 등 지원
 - * (사례) 한-필리핀 농업장관간 ‘농산업복합단지(MIC)에 관한 MOU’(11.11.21) 체결
 - 양국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MIC추진위원회 구성(양국 농업부, 필리핀 토지개혁부, 환경자원부, 투자청, 경제자유구역청 등 참여)
 - 민간기업의 초기 투자 위험도 완화, 민간주도 개발의 한계 극복 등을 위해 **민간·공공 공동협력 진출** 추진
- 유무상 ODA를 해외농업개발과 연계하여 기업의 원활한 해외농업개발 정착 지원 및 진출국가와의 우호적 여건 조성
 - 농업에 활용될 **사회기반시설**(도로, 전력, 관개시설 등)을 ODA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 및 기업 부담 완화 추진
 - 기획재정부(EDCF) 및 외교통상부(KOICA)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하에 ODA 중점협력국 선정 및 국가별 협력전략 마련시 해외농업개발 관련하여 적극적인 고려
-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의 해외농업 진출농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활동 활성화
 - KOPIA 설치 확대 및 해외농업진출 기업의 현지에 적합한 재배작목 선정 및 재배기법 기술지원 활성화
 - * KOPIA 설치국가 : ('09) 6개국 → ('10) 10 → ('11, '12) 15
 - 농업기술 지원을 받은 **현지 농가와 해외농업 진출기업이 상호 발전**하도록 계약재배 등 추진
 - * KOPIA가 베트남에서 감자생산기술 지원을 받은 현지 농가와 (주)오리온 베트남 현지법인간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는 소득향상, 기업은 고품질 감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는 상호발전 효과 발생

가 해외농업 투자환경 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 국가별·지역별 농업자원조사 및 투자환경조사 확대

- 국가별 농업자원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별 농업 정책 및 제도, 투자환경 등 변화 정보 적기 제공

* '97~'11 기간중 22개국을 조사하였으나, 조사한지 오랜기간이 경과된 국가의 정보 업데이트를 위한 조사 실적은 없는 실정

- 기업의 해외농업 진출 의사결정 및 진출전략, 기 진출 기업의 사업 확장 전략 등 마련을 위한 맞춤형 투자환경조사 지원 확대

* '09~'11 기간중 21개 기업(13개 국) 지원, '12년 4개 기업 지원 예정

- 개도국의 농업관련 자료 확보 지원을 위해 농업협력위 등 정부 채널을 통한 자료 확보 강화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협력위 등을 통한 자료 확보, (외교통상부) 주재국 동향 정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TRA 등) 사업 정보

□ 해외농업개발협회의 정보 수집 및 관리 기능 강화

- 해외농업투자 관련 정보수집 및 관리 기능을 연차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외농업개발협회로 이관

- 정보관리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외농업개발협회에 (가칭)“해외농업개발 정보센터” 설치·운영

* 현행 한국농어촌공사가 해외농업투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해외농업개발 종합정보 시스템(www.oads.or.kr)”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 운영 전담조직 및 인력은 부족한 실정

나 기관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해외농업개발 주요 정책 논의 및 조정을 위해 **해외농업개발 심의회**(위원장 :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운영 내실화
- 농림관련 기관*간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 지원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녹색사업단 등
- **관련부처 및 기관의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 등 공조 강화**
 - * 자금지원 및 세제혜택(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등), ODA지원(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해외정보수집 및 외교적 협력(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 **해외공관 및 KOTRA 등의 현지 정보제공 및 기업의 해외농업 진출 지원 협조**
- 해외진출 기업 주축으로 설립된 **해외농업개발협회**(12.5월 설립) 운영을 **활성화**하여 정보교류 강화
- 해외농업개발협회의 투자타당성 조사, 교육훈련, 정보수집,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안내, 관련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등 지원역할 강화
- 해외진출 권역별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 기업간 네트워크 및 정보공유 유도
- 기업진출이 활발한 거점지역 중심으로 세미나·워크숍 개최 등 활성화 지원

5

세계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가 개도국 식량안보 지원 확대

- 수입 의존성이 높고 식량안보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생산성 향상 지원 등 농업개발협력을 강화하는 win-win 전략 추구
-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참여 등 국가간 상호 식량안보 협력 강화

* 국가별 쌀 비축물량(총 787천톤, 우리나라 150천톤)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약정 물량 판매·장기차관·무상지원

나 국제곡물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FAO, APEC 등 국제기구와의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등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식량안보 관련 협력 강화
 - FAO 주관 농산물 시장정보시스템, APEC의 아시아·태평양 식량안보 정보 플랫폼 등 구축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
 - 식량위기 발생시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포럼*, APEC 비상식량 대응 메커니즘 등과의 협력 강화
- 해외 농업투자에 관한 국제규범 마련에 적극 참여
- 곡물수출국의 수출제한조치 규제 등을 위해 G20·APEC·UN 등 다자간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출국과의 양자 협의도 병행 추진

* '12.5월 러시아 카잔에서 개최된 APEC 식량안보 농업장관회의에서 식량 수출국의 수출제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측 주장 반영

* '12.8.23일 이명박 대통령은 곡물가격안정을 위해 G20정상에게 서한 발송